建築形態의 理解
Understanding of Architectural Form

金光鉉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by Kim, Kwang-Hyun

□筆者 註□

이 일련의 글은 建築形態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그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건축의장이라는 영역에서는 건축형태에 대해 설명을 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피상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고, 그 정밀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한 편이다. 대개의 경우 건축의장이라는 내용의 이론들은 초보적인 미술 분야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의장이론으로 확립된 것은 아직은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우기 建築形態는 이에 대한 뚜렷한 이해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것, 또는 실제와는 무관한 이론적인 조작이나 미학적인 유희로만 여겨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 는 앞으로 계속될 일련의 글에서도 지적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 발견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과 관계에 의한 것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회로 예상하고 있는 이 일련의 글은 建築形態에 대한 이론들을 재정리하고 그것들을 평이하게 소개함으로써 建築形態가 얼마나 건축이론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논리로 일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른 것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재의 대부분은 建築形態의 이론을 실제의 건축작품과 비교하여 가급적 실체적이며 구체화된 문맥에서 이해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들을 집약적으로 서술함으로써 建築形態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金光鉉
53년 경북생. 서울대 건축과(1975). 동대학원 석사(1977) 과정 수료, 동경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공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1. 왜 建築形態에 주목해야 하는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주위에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形態로서 존재하고, 形態가 갖는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도 보이는 이 사실은 建築形態에 관한 이론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의이며, 동시에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건축의 형태 또는 건축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 갈 수가 없다.

우리들이 건축물이 지어질 때의 건설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유럽이나 국내의 훌륭한 건축물을 찾아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形態가 갖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일차적으로는 그 건물이 세워지게 된 동기나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력이 자극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의 형태란 감명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의 형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만드는 者인 建築家의 사고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건축가의 사고란 그것이 아무리 건물의 복잡한 프로그램과 얽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형태는 본래 그것이 목적이었던지 아니었던지 관계없이 그 복잡한 프로그램의 해결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건축의 形態(form)를 말하는 경우 空間(space)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건축가의 설계 행위란 空間을 창조하는 것이며, 空間은 생활과 행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의 중심 과제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空間이란 내용이며 形態는 그 내용물을 담는 容器라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윤리적으로 이해하여 내용이 되는 空間은 중시하지만 그 반면에 形態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수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가는 벽이나 기둥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거나 생활을 수용하는 것이며, 오로지 虛體로서의 공간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사고는 형태라는 實體와 관계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더우기 建築形態가 건축 전반에 대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意味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태에는 形式(形相)과 內容(資料)라는 두 가지의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형태는 형식이고 공간은 내용이라는 소박한 이분법과 비교가 된다). 말하자면 형태는 순수한 기하학만이 아니라 반드시 건축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용이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공학기술적인 다양한 의미를 말한다. 건축의 형태가 공간과 크게 다른 점은 공간이란 물리적인 크기나 공간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어도,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建築形態가 意味를 담당함으로써 생긴 개념으로서 역사적으로 성립된 것으로는 性格(character), 象徵(symbol), 表現(expression), 紀念性(moumentality), 記憶(memory), 傳通(tradition) 등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 이후 논의되어 왔던 한국건축의 전통적인 표현 문제는 단적으로 건축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관련된 것이었다.(그림 1) 비록 그 논의가 건축형태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적 자립성을 상징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을 현대라는 관점에서 구현하려 한 시도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력은 과거 건축의 양식이나 외형을 차용하거나 변형하려 하거나 현대적인 기능과 전통적인 형태와의 조화라는 문제로 바뀌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논의가 객관성을 잃자 형태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응용이라는 관점으로 그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건축형태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담당한다는 것과, 건축형태의 문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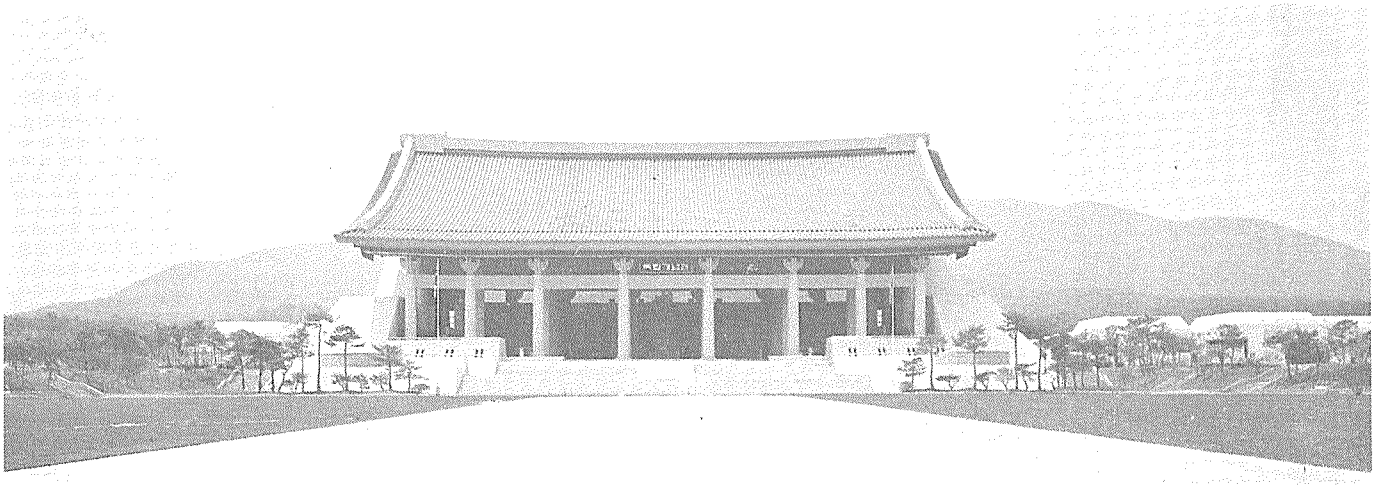

그림1 독립기념관

단순히 미학적이거나 개인적인 관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 전반의 현상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樣式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建築形態의 문제는 건축 전반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樣式 (style) 이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인된 특정한 시대의 건축 개념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形態의 結合體系이다. 또 그것은 명확한 원리와 방법을 내포하면서 그것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다. 양식이 양식으로서 충분히 확립된 상태에서는 마찰없이 그 시대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기술과 대응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양식은 사회 전반으로부터 공인될 수가 없다. 따라서 건축가는 이같은 틀 안에서 공인된 양식에 의존하거나 또는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형태 논리와 수법을 설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노베르크 슐츠 (C.Norberg-Schulz) 도 지적하였듯이, 건축이론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중심 문제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건물은 왜 특정한 형태를 취하는가」[1]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樣式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樣式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모방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다. 그리고 樣式은 형태의 요소와 관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가리키는 形態言語이지, 기능이나 공간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류된 개념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에 나타나는 여러 장르의 건축들, 즉 고딕이나 르네상스, 바로크나 절충주의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은 단순히 형식상의 분류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가 고유한 형태적 전통과 내재적인 논리에 의해 전개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에 나타나는 양식의 변천을 建築理論의 변천이라고 본다면, 建築理論의 역사적 전개는 곧 建築形態 論理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2. 建築形態는 機能의 자동적인 산물인가

近代建築은 1920년대 확립된지 반세기가 지난 이후부터 다시금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정통적인 近代建築理論은 대체로 「形態는 機能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는 명제로 형태의 생성 원리를 집약함으로써, 건축을 기능이나 경제 또는 공학의 합리적인 체계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기능 관계에 의한 합리적 체계는 너무나도 단순 명쾌하여 다양한 현대생활에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력하였다.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機能主義 (Functionalism) 의 입장에서는 형태는 선험적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형태에 이른 명확한 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두가지 입장 중 하나를 택한다. 機能主義에는 유기적인 것이야말로 기능적이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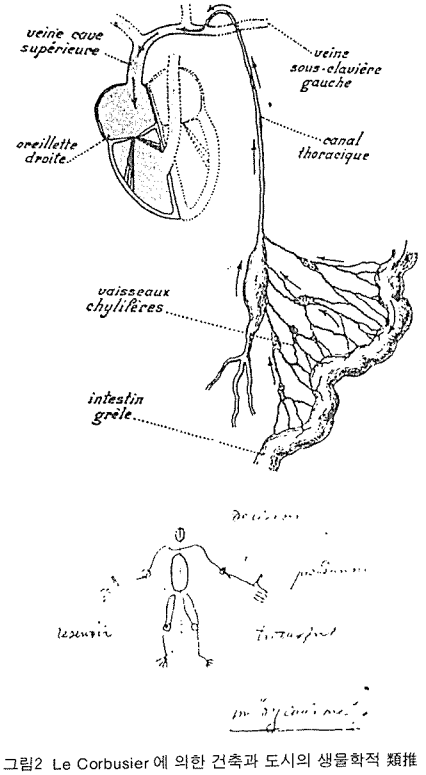

그림2 Le Corbusier 에 의한 건축과 도시의 생물학적 類推

보거나, 기계를 최선의 기능적인 산물로 보거나, 아니면 창조된 것은 모두 목적을 갖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건축은 기능적이다라고 보는 등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것이나 「형태는 기능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機能主義의 주장 자체도 대부분은 表現의 問題, 美學의 問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機能主義는 형태가 기능의 자동적인 산물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건축을 무언가의 형태적인 類推 (analogy)[2]로 보고 그 출발점으로서 생물의 類推, 기계의 類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기능주의를 위주로 한 근대건축의 정통적인 이론들은 결과적으로 건축의 형태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하기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였으며 아니면 이에 대하여 침묵하였다.[3] 예를들어 「우리는 모든 미학적인 思辯, 모든 敎義, 모든 形式主義를 거부한다. 건축은 공간으로 변역된 시대정신이다. 건축은 살아 있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이다.… 우리들은 形態의 문제를 거부하고 건설의 문제만을 인정한다」는 미스 판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 1923년, 1925년)의 언명은 형태에 대한 근대건축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대건축이 형태에 관한 논의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먼저 古典主義와 고딕이라는 절대적인 양식의 틀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8세기 이전에 있었던 형태의 안정된 관계는 없어지고, 형태를 미학적으로나 양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인식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경직화되었던 보자르 (Beaux-Arts) 의 고전주의적인 형태 이론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 때문에, 간접적으로 형태를 정면으로부터 논한다는 것이 타부시되었던 것도 근대건축이 反歷史的이며 反形態的인 태도를 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 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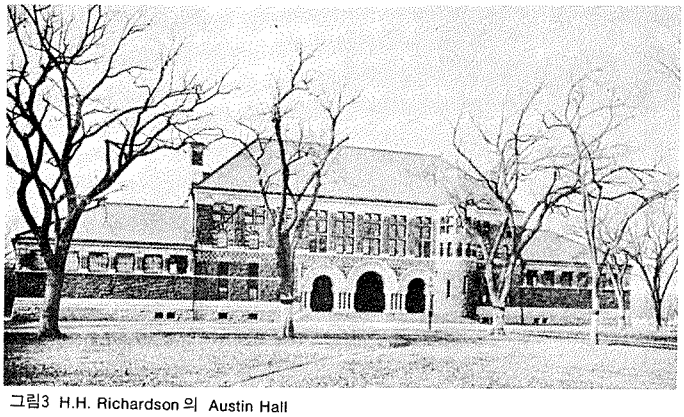

그림3 H.H. Richardson의 Aust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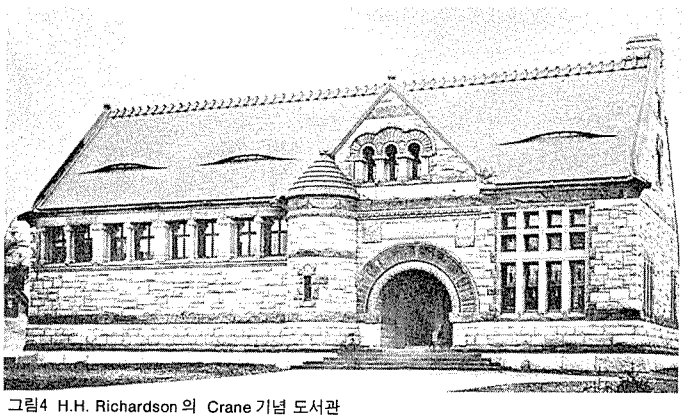

그림4 H.H. Richardson의 Crane 기념 도서관

양식에 의한 공통의 인식 기반 대신에 기술적, 사회적인 설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 과학과 사회 혁명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준다고 믿었으며, 건축의 여러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의 조형까지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으로 믿었다. 한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혁명을 통하여 민중이 모든 것을 결정해 가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이 널리 유포됨으로써, 근대건축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개혁의 프로그램이 건축이나 도시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건축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 이전의 상투적인 역사적 형태의 논리가 아닌 별도의 도그마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건축을 外在的인 조건으로만 설명하려 하거나, 건축의 형태를 기능의 자동적인 산물로 이해하는 태도에는 끊임없이 건축의 본질을 회피해야 한다는 무리가 뒤따른다. 技術이나 합리적인 방법은 건축가에게 새로운 표현 방법과 가능성을 줄 따름이다. 또 프로그램이나 時代精神이 건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것은 설계에 대한 일종의 제약 조건 또는 개략적인 방향 설정으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形態는 機能과 일 대 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機能은 설계조건(프로그램)이라는 건축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조건들을 조직화하는 것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형태가 과연 기능과 일 대 일 대응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시되는 현상설계의 여러 안들은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약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안이 가능한 것은 기능이 형태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형태는 별도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결국 건축가가 이러한 제약 조건 밑에서 실제의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건축가 개인의 상상력과 미학에 의한 것이다.

3 建築形態論이란 무엇인가

건축형태는 건물의 프로그램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형식을 갖는다. 어떤 시대 또는 어떤 문화의 공통적인 양식을 논하는 樣式論이란 이러한 사실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이탈리아 건축에 교회당이나 저택이라는 사용 목적의 차이를 넘어 존재하는 형태적인 특징을 부정한다면,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연구가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작가론도 어떤 작가의 작품군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형태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의 작품들 속에 공통적인 형태의 특징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특정한 작가를 연구한다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설계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논리이다.

건축가는 건물을 구상할 때 흔히 건물의 유형을 넘어 공통의 형태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건축가가 건물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부정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건축적인 사고 속에서는 프로그램의 形態를 통해서 구상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H. Richardson의 하바드 법학부 건물인 Austin Hall (그림 3)은 그 직전에 설계한 Quincy의 Crane 기념 도서관(그림 4)의 초기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구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유형이나 프로그램은 달라도 공통적인 형태가 통합력을 가지고 유효하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형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형태가 기능을 생성시키거나 발견해 준다. 건물의 프로그램은 건축가의 설계 작업에 앞서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만일 건물이 프로그램의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건물은 빈약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건축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 새로운 사용 목적에 대응하여 오랫 동안 존재할 수 있다던가, 중세의 도시가 현대적인 사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技術만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또 새로운 형태가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옛 형태 속에 이미 존재하는 수도 있다. 르네상스 건축이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건축형태의 새로운 해석 대문이지 결코 새로운 구조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르네상스 건축이 타개하려 한 고딕 건축에 의해 크게 뒤떨어짐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근대건축의 발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근대건축의 발전을 19세기의 공학 기술, 특히 철골 구조의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고층의 사무소 건축이 철골 구조의 발전으로 완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만으로 건축의 전반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마천루라 불리었던 최초의 고층 사무소 건축은 1877년에 완성된 Western Union Building과 Tribune Building (그림 5)이지만, 모두 거대한 오더와 만사르 지붕으로 된 프랑스 第2帝政樣式의 건물이며 그 구조도 전통적인 조적조로 되어 있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건축형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생활적 요구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티매틱한 방법으로 설계 프로세스 속에서 형태를 합성해 간다는 태도이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의 『形態의 合成에 관한 노우트』(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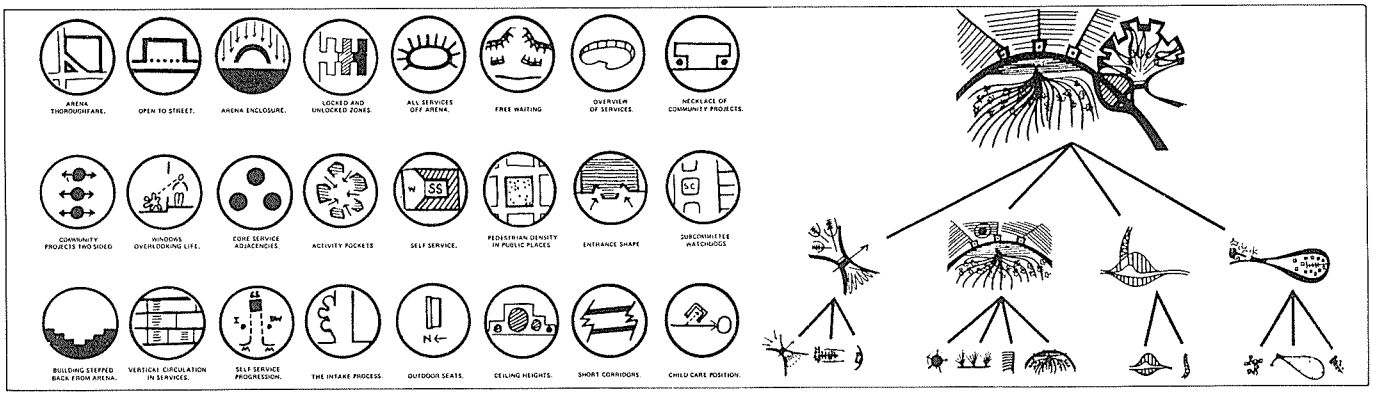

그림6 C.Alexander의 Pattern languge에 의한 형태의 합성과 2차 시스템

조건의 전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것을 조건간의 유사성으로 분해한 후 몇 개의 2차 스시템(subsystem)을 만든 다음, 각각의 2차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랙픽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이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합성해 간다는 입장이다.(그림 6) 「if-them statement」(if : 전제 조건, them : 해결 방법)로 이루어진 「Pattern language」는 마치 단어와 문장과의 관계처럼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언어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객관적인 요구 조건에 대응하여 형태의 문제를 풀어 간다는 수학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끊임 없이 수정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역사적인 사례와 문화 현상을 근거로 하여, 형태의 구성원리를 분석해 간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建築史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건축이론의 한 분야로서 성립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의 강의 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형태의 존재 형식과 건축의 원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변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건축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태도의 대표적인 예는 로버트 벤투리(Robert Venturi)의 『建築의 複合과 對立』(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이다. 그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역사적인 사례를 종횡으로 사용하여 근대건축의 순수주의와 그 빈곤을 공격하고, 다양성과 복합성을 내포하는 설계방법론을 전개하였다.

건축형태에 대한 이같은 태도는 역사를 단순한 양식의 변천사로 보거나 실증이 없는 평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역사에 근거하여 건축가 자신에 의한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건축의 설계 행위를 경험의 세계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론화하고 그 전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形態論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의 형태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內在的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건축형태에 대한 분석이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설계에도 유효하도록 의도된 건축설계 이론의 한 분야이다. 작품 연구나 작가 연구라는 분야에서 이루어진 建築意匠 또는 建築史의 연구도 역시 건축형태론과 마찬가지로 건축형태를 그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建築形態論은 이 연구영역과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그 인접영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영역과 建築形態論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건축에서의 形態論은 건축이 어떠한 形態要素(element)에 의하여 성립하는가, 그 요소들은 서로 어떤 關係(relation)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요소들과 관계는 어떤 意味(meaning)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를 논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건축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건축의 연구 방법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4]

① 건축 작품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작품 이외의 사상, 사회, 기술 등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내포되어 있는 내적인 관계로 설명하려 한다(建築批評과의 대비).

② 건축의 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적인 조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내부를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조건을 문제시한다(建築設計學과의 대비).

③ 건축의 어떤 요소의 발전이나 시간적인 관계를 문제로 삼지 않고, 類型으로서의 共時的인 관계를 문제로 삼는다(建築史와의 대비).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建築形態論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건축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해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註□

1) Christian Norberg-Scultz : Intentions in Architecture, MIT Press, 1968
2) Edward Robert De Zurko :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1957
3) 이에 대하여는 David Watkin : Morality and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과 金光鉉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의 復權」, 건축과 환경 8411을 참조.
4) 香山壽夫 :「建築 形態分析」, A + U 7311

그림5 Tribune Building